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145호  
4월 25일  
2020년  
토요일

#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 진행과정과 최종결말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언제나 만사가 자신의 원대로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일이 원대로 되는 경우와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사소한 일도 있고, 중대한 일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에 곧장 민감한 감정반응을 나타냅니다. 의기양양하거나 의기소침합니다. 원대로 되어 환호하고 의기양양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대로 되지 않았고 심하게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반응입니다.

- 옛날 중국 만리장성의 변방에 <새옹>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옹이 아끼던 말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를 사냥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니다. <아찌면 좋아요.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이 말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노인의 말이 다시 돌아 왔는데 야생마들을 데리고 왔습니니다. 마를 사냥하는 것은 노인에게 복 받았다고 축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대답하기를 <이 말이 복인지 화인지 누가 알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타다가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를 사냥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니다. <아찌면 좋아요. 귀한 아들이 다리를 심히 다쳤으니>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태연하게 <이 말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소> 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모두 징집되어 오랑캐와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만은 살아 남았습니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징집 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회자(傳記)되는 새옹지마(塞翁之馬) 이야기의 교훈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 교훈대로 실천하여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좌절감, 분개심, 적대감을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직면하였을 때 대응하고 극복하는 비결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비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곤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마음상태, 정신상태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과 정신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신이 허약하면 사소한 난관을 만나도 당황하고 낙심하지만 정신이 강하면 쉽게 극복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약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난관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곤경에 처하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버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초인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허릿간지 비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무지의 소치이거나, 함부로 날뛰는 민용(蠻勇)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정신상태로서 엄청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두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왕의 궁중가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레도 모세는 자기 혈관에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지명수배 대상이 되어 왕궁을 떠나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때 모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모세는 호수기회를 위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월은 허영없이 흘러서 모세는 80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는 애굽 왕의 정략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 멸종의 위기에 있었습니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쁨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모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런 엄청난 임무를 맡아 수행할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찔한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거듭 사용하는 의사를 피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끼가 정작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 톱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벌목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작을 쪼개거나 벌목하는 사람에게 도끼나 전기 톱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경우이고 하나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린 사건, 홍해를 육지

처럼 건넌 사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사건 등등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은 책임자가 아니라고 열거한 이런 저런 핑계를 일축하신 하나님이 주신 대령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두 가지를 모세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초인적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막중한 책임을 이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질적인 병태를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결핍하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이치에 맞지 않은 소리로 원망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하여 선별한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사람들의 체력이 우람하며, 군사들과 무기가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영도자도 함께 이끌어 온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솔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부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페라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헤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죄로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내가 함께 하느니라...>(수 1:2-9)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니다. 요점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무터대고 만용을 부리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어 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죄로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생을 이 때 받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초인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직면하였을지라도 그로써 결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미국 프로 야구 선수 <요키 베라>의 명언입니다.

야구경기에서 자신이 편되고 있는 팀이 많은 실점을 하고 8회 말까지 득점이 없으면 패색이 완연하여 응원하던 관중들 중에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 나는 일이 있습니다. 9회 말까지 6대 0 스코어로 진행되던 9회 말 공격에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9회 말에 수비진에서 저만두고 방심하여 연속 실수를 하는 덕택에 도루와 안타가 이어져 만루가 되고 그 다음 타자가 장쾌한 홈런을 때려서 한꺼번에 넉 점 을 얻게 됩니다. 이에 사기충천한 다음 타자들이 연속 안타를 쳐서 석점을 더 얻어 7대 6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야구경기의 극적인 묘미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경기들로 인하여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성도들의 믿음과 경험을 형성하는 표현으로 적절합니다. 이는 신앙적인 표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는 <죽으면 그 뿐이다. 죽으면 다 끝났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생들에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고난 당하고 순교까지 가까이 당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력하기를 <근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6-8)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달려갈 길을 마쳤지만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최종결말에 대해 기대에 가득 찬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유심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메시지에 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결말이 사실은 과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고 기대한 일의 결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과정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결말을 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슨 일든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격정하고 불만을 갖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미련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 성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 중에서 이러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도우심을 받아 430년 간의 애굽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악한 애굽 왕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 노예처럼 혹사 당하다가 자유를 얻고 해방된 그들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웃고 뛰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희망에 부른 가슴을 안고 한창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기쁨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만 수행하면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보내어 인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방향을 전하도록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숙곳에서 애담으로 올라갔던 방향을 갑자기 돌이켜서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모세가 알고 있었고 예상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앞은 흉하여며 좌우를 보니 이적은 비위부성이 언덕으로 깔이 있는 비바하못이고, 저쪽은 애굽의 요새와 수비대가 있는 밋들과 바알스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추적하던 애굽의 수비대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상황을 즉각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흉허가 애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최소한 6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집착한 나머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한 추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는 특별히 선별된 병거 600대와 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는 말씀이 반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바로가 운운한 심정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박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국가와 교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듣고 또 들어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범함하신 것으로 알면 됩니다. 강박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예고입니다. 흉허가에서 정마를 치고 휴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먼지가 하늘로 피어 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땅이 진동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율곡이 드러나자 그것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달려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애굽 군대와 싸울 만한 장비나

훈련된 군사가 그들에게 없습니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 받아야 할 아이와 여자와 노인이 더 많았습니다. 숨거나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직면하게 되자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따지기를 <애굽에 매장자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출 14:11)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만히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기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하였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당면한 상황을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손길을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의 강박함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마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출 14:15,16)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접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쪽으로 옮기니 구름 기둥도 따라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애굽 군사들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 편으로 불기둥이 바뀌어 주므로 밤새도록 대낮 같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갈라진 물이 좌우에 베풀려 서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 땅으로는 걸어서 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으나 빈틈이 없습니니다. 200만 명이 더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거의 다 건너갔을 때 구름 기둥이 옮겨갔고 애굽 군대는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목도하는 신비한 일들에 대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려갔을 것인데 오히려 애굽 군사들은 겁도 없이 뒤쫓아서 바다 길로 달려 갔습니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길로 지날 때는 마른 땅이 되어 용이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니 그들은 제대로 걷기 힘들었고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진흙탕이 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겁을 잡아먹은 그들이 도망하려고 허둥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즉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자 바다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허겁지겁 도망하였으나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 기록을 통하여 명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대하고 노력한 일이 예상을 벗어난 결과로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과정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결말을 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을 진행하시는 중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은 가차없고 엄중하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서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굳세게 붙들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면한 현재 상황이 기대하고 노력한 일의 결말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강박한 자들을 처리하실 때까지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최종결말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9일(주일)  
설교말씀